

실속 재테크

보험 리모델링

“중복 가입 먼저 체크하라”

회사원 김모(46)씨는 올해 들어 줄어 든 월급때문에 보험을 줄이는 리모델링을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얼마전 회사 동료가 보험을 갈아탔다가 앞에 걸렸는데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나선 고민이 생겼다.

을 눈여겨보자. 보통 사람들은 ‘원금’ 보상에 대한 욕구가 강해 만기가 끝나고 나면 돈을 돌려준다는 상품에 귀가 솔깃해진다. 하지만 이처럼 보험으로 재테크를 하려다 보면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품 구성이 되기 쉽다.

입하면서 기본계약과 선택특약 등에 실비 처리되는 의료비 보장금액이 중복되거나 과잉돼 있다면 불필요한 부분을 감액해 보험료를 줄이는 게 좋다. 단 정해진 금액을 보장하는 정액보험의 경우는 실비 보장과는 다르다. 가령 골절 진단시 30만원이 지급되는 정액 보험 10개에 가입했다면 총 300만원의 골절 진단금을 받을 수 있다.

경제 상황 어려울때 투자형 상품부터 ‘다이어트’ 갈아타려면 연령·가족 구성원 등 꼼꼼히 살펴야

다육 절실하기 때문이다. <저축형·투자형 상품부터 다이어트>=경제적인 문제로 보험 다이어트에 나선 경우라면 어떤 보험부터 군살을 빼야 할까. 이때는 ‘마지막까지 꼭 필요한 보험은 무엇인가’를 거꾸로 뒤집으면 답이 보인다. 보험 본연의 기능인 ‘보장’의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부부부 빈익빈 현상이 있다. 보험 가입자 중에는 6~7개 상품에 가입한 경우가 있는가하면 반대로 전혀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꼭 필요한 보장성 보험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문제지만 보험의 과소비로 여러 보험에 중복 가입한 경우도 효용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때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만약 보장 부분을 다이어트 한다면 의료비와 같이 실비 처리되는 보장에 중복이 없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좋다. 실비 처리되는 보장은 여러 개 회사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전체 보장금액내에서 실비만 지급될 뿐이며 중복보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 상품을 여러 개 가

그렇다면 보험을 갈아타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험을 골라야 할까? 정말 나에게 꼭 맞는 상품인가를 알아보면 연령과 가족 구성원, 경제적 능력 등이 중요 구배가 된다. 미혼과 기혼, 20대와 50대가 필요로 하는 보장은 다를 수밖에 없다. 보통 미혼일 때는 의료비가 실비 처리되는 보장성 상품을,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을 때는 가장의 갑작스런 사망에 대비해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광주FP포럼 최혜영 총무는 “보험 리모델링의 기본 원칙은 가입 시에는 소득이 큰 사람부터하고 해지할때는 소득이 적은 사람부터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자녀와 함께 소중한 추억을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창립 30주년을 맞아 13일까지 자녀와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Hello Kitty Hello’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키티인형을 전시(2층)하고 키티 영상체험관(1층) 운영해 각종 게임을 체험해 볼 수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소득 줄었는데 식료품값 급등 상반기 엔겔계수 8년만에 최고

지난 상반기에 각종 식료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엔겔계수가 8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엔겔계수는 19세기 독일의 통계학자 엔겔이 발견한 법칙으로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식료품비의 비중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하락하고 생활형편이 나빠지면 올라간다. 8월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중 가계의 명목 소비지출액은 269조7천9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264조4천24억원보다 2.0%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그러나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은 30조9천23억원에서 33조7천194억원으로 9.1%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소비지출에서 식료

품 및 비주류 음료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2.5%로 작년 같은 기간의 11.7%보다 0.8%포인트 급상승했다. 이 비중은 상반기 기준으로 지난 2001년(12.7%) 이후 가장 높다. 식료품·비주류음료품 비중은 ▲2002년 12.2% ▲2003년 12.0% ▲2004년 12.3% ▲2005년 12.2% ▲2006년 11.8% ▲2007년 11.6% 등으로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나타내다가 올해 상반기에 급상승했다. 명목 식료품·비주류 음료품의 소비지출이 급증한 것은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의 가구당 명목 지출액은 지난 상반기에 199만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85만원에 비해 14만원이 늘어난 반면 200만원에 육박했다. /연희뉴스

목포 대형마트 직원감염 괴소문에 매출 급감 “신종플루 막아라” 비상

유통·금융 등 지역 경제계 위생 관리 등 직원교육 강화

유통업계는 비롯해 광주지역 기업들이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신종플루 확진 환자가 121명으로 는데다 목포지역 대형마트에서는 신종플루와 관련된 괴소문이 돌면서 방문고객이 줄어드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유통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목포지역 한 대형마트에 지난달 26일부터 ‘신종플루에 감염된 직원이 매장에 근무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매장 방문고객이 급격히 줄어 매출이 20%나 급감했다. 해당 대형마트 측은 “신종플루에 감염된 직원이 없는데도 포털사이트 한 카페를 중심으로 괴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 같다”며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지역 유통업체의 경우 직원대상 위생교육을 강화하는 등 신종플루 막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광주신세계백화점은 11일부터 6일

간 진행할 예정이었던 ‘협력사원의 밤’ 행사를 취소했다. 조희시간마다 사내방송을 통해 위생관리 등 신종플루 대처법을 전달하고 직원용 출입구에 손소독기를 설치하는 등 손 씻기 캠페인도 펼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식품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마스크와 위생장갑을 착용하도록 했으며, 식품의 전반적인 위생을 담당하고 있는 품질평가사를 통해 식당가 및 직원 개인 위생을 점검하고 있다. 현대백화점 광주점은 직원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각층별로 조희시간마다 위생교육을 하고 있다. 금호고속은 매표소 등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원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으며 승무사원에게는 휴대용 손 소독제를 지급했다. 또 각 사무실에 체온계를 비치, 직원 및 방문객의 발열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고 있다. 가아차는 신종플루 검사용 키트를 별도 구입해 공장 내 산업보건센터에 비치했다. 각 반별로 체온계를 지급해 발열상태를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달 말까지는 전 직원에게 마스크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대기업·중소상인 상생 “광주시가 적극 나서라”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가 8일 대기업 유통업체와 지역 상인들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롯데마트 수완점 사업조정신청 가격을 비롯해 중소기업청이 지역의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입장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며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 중소기업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상생경제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롯데마트 수완점, 롯데아울렛 수완점의 임시사용신청을 허가하지 말고 사전조정협의회 구성계획 공개와 지역사회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국제보청기' (National Hearing Aids) featuring a horse and rider illustration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

Advertisement for '다량치킨피파' (Dallyang Chicken Piffa) featuring images of fried chicken and a glass of beer.

Advertisement for '다량치킨피파' (Dallyang Chicken Piffa) featuring a cartoon chicken mascot and promotional text.